



# 열린 시대, 달힌 땅 캠프 페이지

캠페이지



## 캠페이지

Camp Page, 똑바로 읽자면 캠프 페이지가 맞겠지만 춘천 사람들은 그냥 '캠페이지'라고 부른다

캠페이지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한미군 주둔지 중 한 곳으로 1951년 춘천이 수복된 후 미군 활주로를 만들면서 K-47 비행장으로 시작했음

1958년 포병 로켓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한 John U D Page 대령의 이름에서 따온 주둔지명을 2005년 기지를 폐쇄할 때까지 사용했음

존 D 페이지 대령은 필리핀에서 태어나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ROTC를 거쳐 미육군 포병장교로 임관하였으며 한국에 파병된 지 12일 만인 50년 12월 10일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음



## 캠페이지

캠페이지에는 보병, 공병, 통신, 보급 등 다양한 부대들이 주둔했지만 가장 큰 곳은 제4미사일 사령부였으며 어네스트 존 로켓이 운용되었음

어네스트 존 로켓은 일반 고풍탄은 물론 핵탄두와 탄저균 등 생물학 무기도 탑재가 가능한 살상무기로 1978년 주한미군이 다른 미사일로 대체하기 전까지 캠페이지에 주둔했음

1972년 캠페이지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의심이 있는데 이때 사고 원인이 핵탄두가 탑재된 어네스트 존 이었다고 전해짐

80년대 이후부터는 542의무후송중대, 아파치 헬리콥터를 보유한 제2공격 헬리콥터연대 1대대가 이어서 주둔하고 있었음



## 캠페이지

1951년부터 미군들이 주둔하던 Camp Page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LP)에 따라 2005년 3월 29일 폐쇄되었으며 주한 미군 기지 중 6번째로 반환되었음

2005년 캠페이지 반환 이후 국방부가 관리하다 춘천시는 1,213억원의 시비와 531억원의 국비를 들여 55만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했음

춘천시는 매입을 위해 71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2024년 현재 상환하지 못한 지방채는 원금만 292억원에 달함

반환 이후 기름 유출과 아스콘 매립 등 심각한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정화 책임과 비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정화가 완료된 일부 구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물놀이장 등 운영중임

## 캠페이지와 나



## 캠페이지와 나

### 담장, 철조망, 초소

캠페이지에 대한 가장 뚜렷한 최초의 기억은 소양로를 가로질러 한없이 이어지던 벽돌 담장이다. 그때만 해도 가로수는 플라타너스였는데 키 큰 나무 높이까지 담장과 철조망이 올라가 있었다.

‘미육군의 재산’이니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써있던 담장위로 드문드문 초소들이 올라와 있었고 보초는 허름한 한국 아저씨들이었다. 정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선 미군 헌병들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키와 피곤한 얼굴로 구식 소총을 어깨에 매고 있었다. 평퍼짐한 작업복과 눈썹까지 내려오는 모자때문에 더 비루해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육군의 재산을 지키고 있었다.



## 캠페이지와 나

### 1983년, 어린이날

학교는 안가도 되는 공일이었다. 늦은 아침 먹고 마루에서 낮잠을 잤다. 느닷없는 사이렌 소리에 깨서 불안하게 두리번 대다가 동네 형 자전거 뒤에 실려 근화동까지 갔다. 미군기지 담장 밑에서 둔덕에서 자전거 짐칸에 올라서니 ‘중공’ 비행기가 보였다. ‘자유중국’으로 망명하는 반공투사들이 캠페이지에 내렸다.

우리나라 장군이 캠페이지에 들어가려다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저긴 미국이구나 했다. 미국 땅에 내린 중공 반공투사들은 한국법에 따라 감옥살이를 하다가 자유중국으로 보내졌다고 나중에 들었다. 검색해 보니 자유를 찾아 대만에 귀순한 하이재커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노숙자로 험하게 죽기도 한 모양이다.

## 캠페이지와 동네



### 캠페이지와 소양동

#### Rainbow club VS Club Paradise

캠페이지 정문에서 시청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대로변에 Rainbow club이 있었다. 소양로쪽으로 조금 내려가는 길목엔 Club Paradise가 있었다. 토요일 학교에서 놀다 어스름한 오후에 집으로 가다보면 R과 P를 지나쳐야 한다.

아직 해가 있지만 클럽앞엔 등판에 호랑이나 용이 그려진 유광 잠바를 입은 미국인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P앞에는 모두 흑인들이었고 조금 떨어진 R앞에는 전부 백인들이었다. 가족소파 같이 생긴 극장문 출입구에는 '한국인 출입금지, 미군전용업소'라는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흑인 전용이나 백인 전용이라는 표지는 없었지만 이들은 내외하고 있었다.



## 캠페이지와 근화동

### 난초촌의 아쿠르트

중3 방학때였다. 자기네 집에서 놀러 오라고 조르던 친구가 있었다. 캠페이지 너머 근화동까지는 기지 답장을 한참 돌아가야 하는 먼 길이었다. 엄마가 아쿠르트 도매상을 한다는데 동네 구멍가게도 겸했다. 둘이서 삶은 계란과 아쿠르트를 먹으며 킁킁대다 문을 열었다. 더 근자 모양 마당 가운데 수돗가에는 잠옷만 입은 누나 대여섯이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친구는 친척 누나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캠페이지를 따라 난초촌, 장미촌, 개나리촌이 있었다. 2013년 자진폐쇄하기전까지 많을때는 6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집결지에서 살았다.

## 캠페이지와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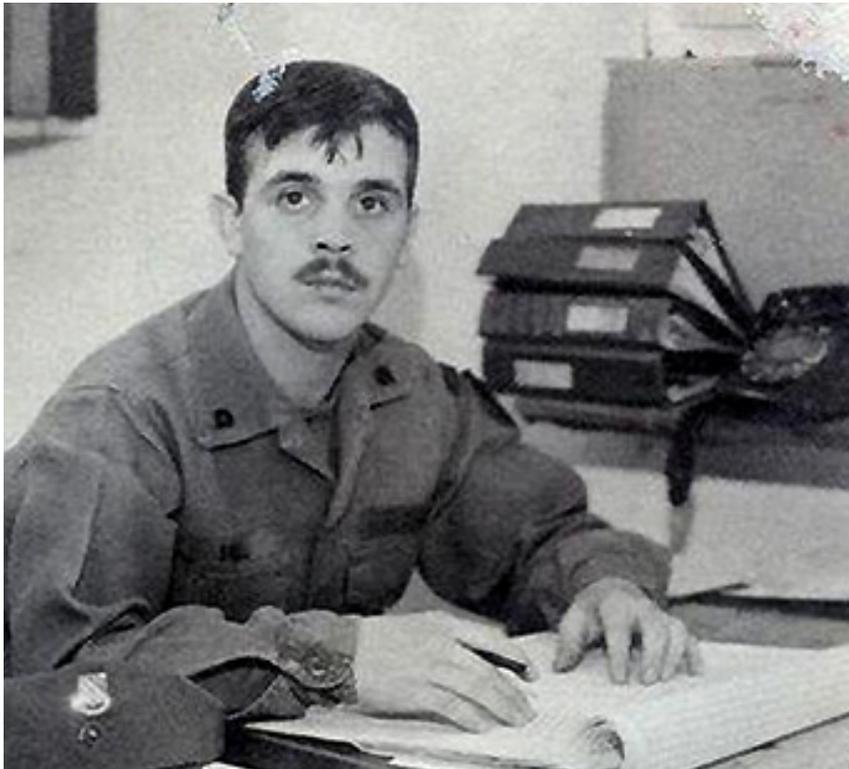
## 캠페이지와 춘천

### 양키시장, 라사골목

잘사는 집 아이들이 싸오는 도시락에 들어있는 소세지는 달랐다. 납작하고 둥그런 사각형인데 햄이라고 했다. 부드럽고 맛있었다. 양키시장에서 사 온거라고 했다. 친구 아버지가 야깁다는 시바스리갈을 들고나와 양키시장에 가면 몇천원쯤 챙길 수 있었다.

한창 때 춘천에는 맞춤양복점 골목이 있었다. 서울라사, 제일라사... 미군들은 한번에 열벌씩 맞춰 귀국하기도 했다.

그 때만 해도 춘천은 공무원 1명이 5명을 먹여 살리고 미군 1명이 50명쯤 먹여 살리다고 했다. 양키시장 물건을 밀수품이라며 나오는 단속도 대부분 형식적이었다..



## 캠페이지와 춘천

### Dallas Snell

“1972년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던 날이다. 어니스트 존 핵미사일 보관소에서 핵탄두가 장착된 어니스트 존 미사일을 등지고 디펜스 자세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중에 미사일 탄두에 문제가 생겨서 헬기가 수송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끔은 알 수 없는 드림통을 부대내 공터에 묻었다. 취급주의 표시가 뚜렷한 고엽제와 제초제였다. 그 때 오염된 물이 춘천시내로 흘러들어갔다.”.

“그 땅에 끔찍한 물질을 마구 버렸다. 그러면서 밭에서 인분 냄새가 나고 한국사람들이 더럽다고 욕했다. 더 더러운 존재는 우리였다.”.



## 캠페이지와 춘천

### 헬리콥터와 불면증

캠페이지 높은 담장도 소음을 막지는 못했다. 캠페이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군 헬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바람, 분진 등으로 입은 청력이상, 불면증, 고혈압, 호흡기질환 등의 신체적 피해와 불안감,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수십년동안 계속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2003년 춘천시민 42인은 캠페이지 소음피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군의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물건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한미행정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승소하였다.

### 캠페이지와 새로운 상상

## 춘천 도시재생 혁신 국가시범지구 구상(안)

혁신산업(K-Culture 연관산업) 및 첨단산업 유치로 **新경제거점** 조성

### 사업개요

- 위치 : 근화동 199번지 일원 (옛 캠프페이지)
- 면적 : 약 51만 ㎡
- 사업비 : 약 2조원 규모

### 마중물 사업 (국비 최대 250억 지원)

- 문화공원 및 보행네트워크 조성
- 복합용지 내 재생기반시설 설치
  - 통풍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SOC 설치



### 주요 도입가능

- 춘천 경제 재도약 마중물 혁신산업 - "K-Culture 연관산업" 전략 육성
- 춘천이 지향하고 있는 첨단산업



복합용  
• 도입

기후디  
• 미세  
및

주거용  
• 직조  
통하

## 예외공간에서 보통공간으로

60년간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의 이름으로 예외 공간으로 구획되었던 캠프페이지를 춘천의 번영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보통공간으로 편성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다만, 미군기지로 인해 배제되었던 경제적 성장과 도심 개발을 공간적으로 집약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된다면 '국가안보로서의 예외성'을 '개발로서의 예외성'으로 대체하는 또다른 예외공간의 구획화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예외공간 캠프페이지가 특권과 배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개발을 명분으로 하는 예외공간 경제거점은 일정한 공간과 집단을 차별적으로 선택 포섭하는 예외성에 기반할 가능성



## 예외공간으로서 캠프페이지

정치 또는 안보의 비상상태 때문에 통상적인 법의 적용이 면제되거나 통치적 지배력이 규제없이 실현되는 공간 ex) 관타나모 수용소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안보적 시급성에 대한 다른 의견을 배제하는 권위주의적 예외공간은 구획화에 필요한 사회적 에너지를 국가권력과 자본을 통해 동원

예외공간은 법과 통치력의 예외적 경계안에 묶어둘 수 없으며 구획을 벗어나 개인의 생각과 공동체의 생활, 도시의 전환으로 헤게모니적 지배를 확산하고 '공간'에서 '장소'로 확장



## 커먼즈 예외공간을 향하여

커먼즈로서 예외성 (commons as exception)을 만들기 위한 공간 상상력이 필요

예외공간은 단순히 구획되고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생각, 삶, 전환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의 단초를 제기할 수 있기에 대안적 전략으로 활용 필요

권력과 권위보다는 대화와 참여가 커먼즈 예외공간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엔트로피 공간

다름은 우월과 열등이 아님을 확신하고 일방이 주도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

생태계, 다양성, 상호의존성, 공동활동 등 공존의 방식을 대자연으로부터 차용하여 학습하는 공간

주류의 가치와 태도, 다수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아도 지속가능한 안전한 공간